

비즈 프리즘 | '차량 화재' 대국민 공식사과 한 BMW코리아

“안전진단·리콜에 만전...주 단위로 현황 공개”

6일 김효준 회장, 직접 나서 사과 수석부사장 등 본사 주요 임원 참석 소프트웨어 오류문제 강하게 부정 “EGR쿨러의 냉각수 누수가 원인”

“화재 사고를 겪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객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

최근 연속된 차량 화재로 사회적 큰 논란에 휩싸인 BMW코리아가 결국 대국민 공개사과까지 나섰다.

BMW그룹코리아 김효준 회장은 6일 오후 4시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BMW코리아 및 파트너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근무하며 고객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전 진단과 리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BMW그룹 경영진과 상황을 공유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만 차량 화재로 논란의 중심에 선 BMW코리아가 결국 머리를 숙였다.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BMW그룹코리아 김효준 회장(왼쪽)과 화재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요한 에벤비클러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게르하르트 벨레 글로벌 리콜담당 책임자, 피커네피셔 디젤엔진 개발 총괄 책임자, 글렌 슈미트 기업커뮤니케이션 총괄 책임자 등 BMW그룹 본사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문제가 된 화재 원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EGR 쿨러 냉각수 누수 근본 원인

이어 브리핑에 나선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은 “화재사건의 근본 원인은 EGR(배기가스 세순환 장치) 쿨러의 냉각수 누수”라고 밝혔다.

에벤비클러 부사장은 “엔진에서 나올 때 최대 830도까지 올라간 배기가스가 쿨링 모듈서 600~280도까지 내려가고, 다시 배기가스 파이프를 거쳐 흡기다기관에 들어갈 때 100도까지 낮아진다”며 “시스템이 문제였다면 이 온도로 정상 작동하지만 EGR 쿨러의 냉각수 누수가 발생하면 점층물이 형성되고 흡기다기관에 쌓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벤비클러 수석부사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소프트웨어 오류 문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소프트웨어는 유럽과 한국이 동일하며 미국만 약간 다르다. 하드웨어는 전 세계에서 같은 부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에벤비클러 부사장의 주장이다. 다만 한국에서 화재가 단기간 집중 발생한 원인을 추가 분석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일반적으로 차량 화재에 앞서 전조증상이 있는데 운전 중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출력이 떨어질 수 있고, 운전자가 타는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재원인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 끝난 뒤 김효준 회장은 다시 한 번 사과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소비자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며 주 단위로 리콜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6일

코스피지수	2286.50	↓	-1.18
코스닥지수	781.41	↓	-7.40
日 닛케이 지수	2만2507.32	↓	-17.86
中 상하이 종합	2705.16	↓	-35.29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0	↓	-0.01
환율 (원/달러)	1124.00	↓	-4.00
국내금값 (원/그램)	4만3819.81	↑	+35.47



기아자동차, 스토닉 1.0터보 출시

기아차가 2019년형 스토닉(사진) 출시에 맞춰 1.0 터보 모델을 내놓았다. 스토닉 가솔린 1.0 터보 모델은 1.0 T-GDI 가솔린 엔진과 7단 DCT를 갖춰 최고출력 120마력, 최대토크 17.5kg·m의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 먼저 나온 1.4 가솔린 모델(최고출력 100마력, 최대 토크 13.5kg·m)과 비교하면 최대 출력은 약 20%, 최대 토크는 약 29% 향상됐다. 17인치 타이어 기준 복합연비는 13.5km/ℓ다.

스토닉 1.0 터보, 1.4 가솔린, 1.6 디젤 등 세 가지 엔진으로 구성된 2019년형 스토닉은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업그레이드했다. 드라이브와이즈 패키지를 통해 차선 이탈 방지 보조(LKA)를 장착할 수 있고 H D DMB를 적용해 멀티미디어 성능을 강화했다.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1열 통풍시트를 기본 적용했다.

가격은 1.0 가솔린 터보 1914만~2135만원, 1.4 가솔린 1625만~2022만원, 1.6 디젤 2037만~2258만원이다.(자동차 변속기, 개소세 3.5% 기준) 원성열 기자



‘발암 우려’ 고혈압약 59개 추가 판매중지

중국산 원료 쓴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복용 중인 환자 18만명 재처방 받아야

발암 가능 물질이 함유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이 추가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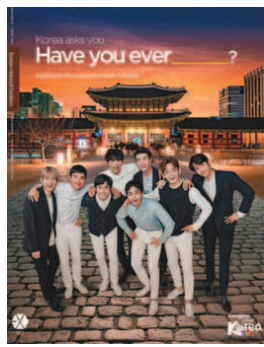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원료로 제조된 국내 고혈압치료제 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은 중국 주하이 룬두사의 원료를 수입·정제한 것으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의 잠정 관리 기준 0.3ppm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에 논란이 된 발사르탄은 중국 제지

양화하이사가 제조한 것으로 국내 115개 제품이 판매중지 중이다. 이번 추가 판매중지까지 합하면 총 174개 제품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의약품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시켰다.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의약품은 복용 중인 국내 환자 수는 모두 18만1286명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59개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진료 받는 병원을 방문하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및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관련 제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엑소, 한국관광 해외광고 21편 모델 나서



K-POP 스타 그룹 엑소(EXO-사진)가 한국관광을 해외에 알리는 모델로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엑소의 멤버들이 주인공으로 나선 6개 테마의 광고 21편을 제작해 해외 시장에 공개한다. 엑소가 나선 한국관광 광고 주제는 “한국에서 이런 것도 해 봤니?”(Korea Asks You, Have you ever?). 역사와 전통, 일상생활, 모험, 트렌드, 힐링, 한류 등 6개 테마로 나누며 각 주제별로 2018년 광고모델이자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엑소의 멤버 8명이 주연을 맡아 한

국관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친근하게 표현하였다. 김재범 기자

한국오므론헬스케어, 자동전자혈압계 출시 한국오므론헬스케어가 자동전자혈압계 신제품 HEM-7600T를 출시했다. 혈압계 본체와 측정 컵의 일체형 디자인으로 편의성과 휴대성을 높인 상완식 혈압계 제품이다. 측정자가 혼자서도 손쉽게 팔뚝에 밀착시킬 수 있으며, 균등한 공기 압력으로 보다 정확하게 올바른 혈압 측정을 돕는다. 본체 측정 버튼 터치 한번으로 전원이 켜지고 자동으로 측정이 시작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블루투스 기능을 통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삼성헬스’와의 연동으로 언제든 혈압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정용운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교육·퍼즐

에듀월

2018 하반기 삼성 GSAT, 모의고사로 실력체크는 필수!

역대급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염이 수그러들 8월 말부터 주요 대기업의 공채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현대차·LG·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하반기 본격 채용에 돌입했다. 삼성도 올 하반기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선두적으로 필기시험을 도입한 삼성은 ‘GSAT’라는 인적성검사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많은 수험생들은 GSAT에 응시하기 위해 스테디를 개설하고 강의를 듣는 등의 노력을 한다.

올 하반기 취업을 노리는 취준생들은 여름방학 일찌감치 GSAT 응시를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많은 교육기업들도 GSAT 시험을 위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GSAT 과정에는 온·오프라인 강의부터 교재 등이 있는데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GSAT 실력체크 모의고사’다.



직·연구직 등 직렬에 따라 각자 실력체크를 해 볼 수 있도록 직렬에 맞는 모의고사를 마련했다.

지금부터 9월3일까지 응시가 가능한 이 모의고사는 실전 문제와 가장 유사한 문제로 구성됐으며 상세한 성적 통계로 자신의 위치와 취약점까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모의고사 응시 방법은 온라인 서점에서 GSAT 도서를 구입하고 응시 쿠폰을 받거나 에듀월의 대기업 강의를 수강, 에듀월 GSAT 스터디 참여, 취득카페 이벤트를 통해 응시권을 받을 수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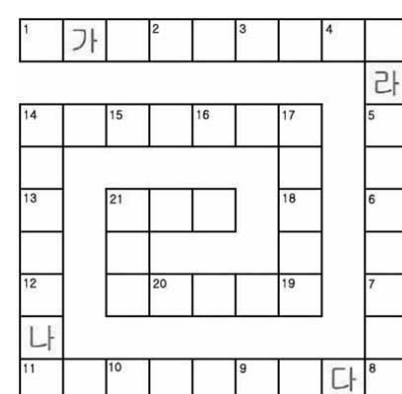
하반기 대기업 공채 대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 낱말문제



01. 끝없이 넓고 큰 별판.
02. 상품 따위를 파는 가게.
03. 점을 찍은 듯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모습으로.

04. 이가 되든지 해가 되든지 간에. “○불리○”
05. 간략하고 소박하게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06.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물.
07. 국가, 민족, 개인 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신.
08. 몸과 땅은 돌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 “○토볼○”
09. 이미 지나간 일. “○왕○사”
10.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집안의 사람.
11. 누웠거나 앉았다가 느끼게 슬그머니 일어나는 모양.
12. 스타의 지위 또는 신분. ‘인기 대 열’로 순화.
13. 남에게 넘겨주거나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격정거리.
14. 주문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준 치수에 맞추어 미리 지어 놓고 파는 구두.
15. 꽃의 액을 짜내어 만든 향수. ‘○로○’
16. 많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한곳에 가두거

나 모아 넣는 곳.
17.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18. 지혜와 재주가 씩 뛰어난 사람.
19. 주로 봄날 햇빛이 강하게 쬐 때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
20.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로 맞닿은 쪽의 발목을 묶어 세 발처럼 하여 함께 뛰는 경기.
21. 주로 여자의 다리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나.다.라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제목이 됩니다.